

옛 국군광주병원서 예술을 꽃 피우다

‘메이투데이’ 특별전 4월 1일~5월 9일 ... 무료예약 관람
광주 저점 활동 정선희·송필용·이인성·강운 등 12명 전시



폐쇄된, 오래된 병원 복도에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졌다. 5000포기 데이지꽃으로 꾸며진 길이다. 열린 창으로 비치는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데이지꽃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옛 국군광주병원 현장에 설치된 문선희 작가의 작품 ‘물고, 물지 못한 이야기_목소리’다. 관람객들은 오는 4월1일부터 꽃길 사이를 걸으며 전시를 관람할 터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초등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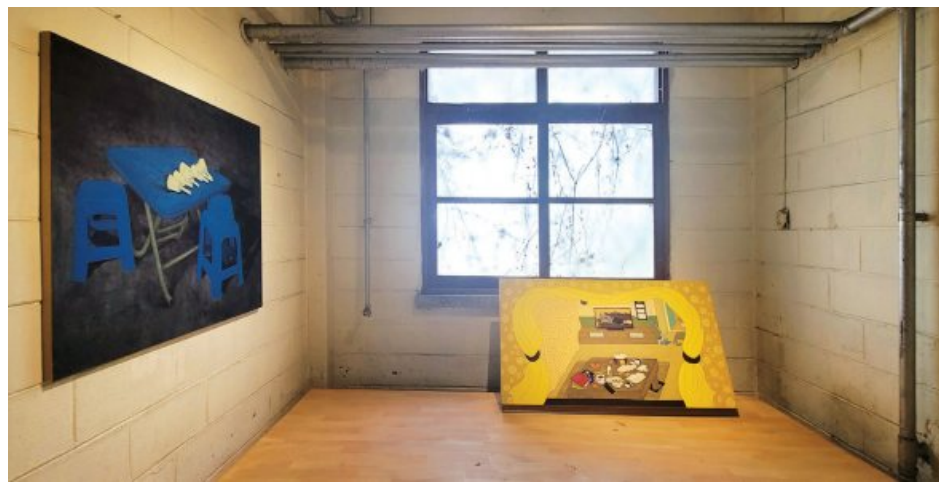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 ‘메이투데이’가 다시 광주로 왔다. ‘메이투데이’는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다국적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부터 타이베이, 서울, 필른,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전시를 앞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하는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열리는 ‘메이투데이’의 이번 여정은 광주 지역 작가들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월항쟁의 장소였던 국군광주병원의 ‘장소성’에 주목하며 12명의 작가들이 신작과 대표작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는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과 함께 5·18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예술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기획으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현장에서 겪지는 못했지만 역사가 남긴 상흔 안에서 살아가는 작가들이 소통하는 장이기도 하다. 전시 기획은 이선 이강미미술관 학예실장과 임수영 독립큐레이터가 맡아 진행했다. 참여작가는 강운·김철아·이연숙·송필용·문선희·이세현·임남진·박화연·이인성·정선희·정정주·최기창이다.

국군광주병원은 1964년 개원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계엄사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학생과 시민이 치료를 받던 곳으로 2007년 합병으로 이전 후 병원은 폐허 상태였다. 이후 광주비엔날레 제12회 행사가 열렸던 지난 2018년부터 ‘광주를 기억하는’ GB 커미션 작품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내년이면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이곳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기획이다. 비엔날레 기간(4월1일~5월9일) 중에는 ‘메이투데이’ 작품과 함께 GB 커미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전시 참여작가들은 병원 1층 체육실과 병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들은 전시 참여전부터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작품 구성과 배치 등을 고려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남진 작 '든 자리 난 자리' (왼쪽)과 '무기력'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만나는 문선희 작 '물고, 물지 못한 이야기_목소리'는 5000포기 데이지꽃으로 꽃길을 만들었다.

개막 전인 29일 찾은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문선희 작가의 작품이었다. 오월, 구제역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해온 문 작가는 이번엔 기존 사진 작품 대신 데이지꽃으로 만든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몇년 전, 1980년 오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들의 기억을 글과 사진으로 펴낸 적이 있던 문 작가는 이번엔 ‘그 때’의 글을 2021년의 초등학생이 낭독한 음성으로 제작해 들려주는 작품을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데이지 꽃길을 걸으며 음성을 듣는다. 이제 곧 사라질 공간을 기억하고, 치유받는 의미로 작업한 작품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인성 작가는 회화 그림 ‘그라운드’에서 영감을 얻어 바베큐 기구와 풋볼 놀이기구를 소재로 작업한 ‘플레이어’ 설치 작업에 한창이었다. 1층 체육실에서 만나는 이연숙 작가의 설치 작품 ‘아무도 모르는 일 0518’은 작가가 지난해 바다에 침해놓은 하얀 진흙이 매일 이곳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세현 작가의 ‘에피소드_터전을 불태우다’는 수개월간 국군광주병원과 자신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대학교 4학년 때 5·18을 겪은 송필용 작가는 묵직한 황톳빛의 입체감이 돋보이는 ‘오월의 역사’와 ‘봄은 정화수’를 선보이며 임남진 작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낸 ‘환연’을 전시한다.

한편 국군광주병원에서는 GB 커미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블 작가는 비무장지대에서 가져온 철조망을 활용한 신작을 선보이며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신의 언어’, 카테르 아티아의 ‘이동하는 경계들’,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 (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 임민욱 작가의 ‘체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 등이 전시된다.

개막 당일에는 신유구 작가의 설치 퍼포먼스 ‘기억의 정원, 꽃을 피우다’도 진행된다. 관람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빛, 별, 아이들’ 아름다운 하모니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4월 3일 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4월3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32회 정기연주회 겸 박주현 지휘자 취임 연주회 ‘The Light_빛, 별, 아이들’을 선보인다.

지난 1월 취임한 박주현 신임지휘자는 미국에서 다양한 합창음악을 공부한 젊은 여성 지휘자로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임지휘자를 역임했다.

이날 공연에는 미래를 빛나게 밝힐 4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빛고를 광주에서 새로운 도약을 펼칠 박 지휘자의 포부가 담겼으며,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무대는 ‘The Light (빛)’을 주제로 ‘The Singing heart’, ‘Stars’, ‘Festival Cantate’ 등을 노래한다. 물이 담긴 와인잔을 단원들이 직접 연주해 아름다운 울림으로 합창의 조화로운 울림을 더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이어 ‘Stars (별)’을 주제로 한 두번째 무대에서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노래를 통해 미래의 꿈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마음을 담아 조성은의 ‘별’, 윤이상의



지휘자 박주현 (왼쪽)과 바리톤 공병우 (오른쪽)

‘반딧불’, 이현철의 ‘나눔’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의 주제는 ‘Children (아이들)’이다. ‘Song of Hope’, ‘Takadamu’, ‘I can feel the rhythm’, ‘Hats’ 등을 노래하며, 곡에 맞는 안무까지 더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에는 바리톤 공병우(전남대 교수)가 함께한다. 공 씨는 이날 이수인의 ‘별’,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The Stars’ 등을 부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 4월 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봄날의 기억’

서유나 개인전, 31일~4월11일 양림미술관

꽃과 나비, 화폭에 화사한 봄이 한 가득이다.

서양화가 서유나 작가 개인전이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제중로 70)에서 열린다.

‘봄날의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봄의 색채와 형태를 개성있게 묘사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서 작가의 작품은 대상의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피사체의 특징을 잘 파악한 후 색감을 정하고 이를 반복해 바르는 과정을 통해 그윽한 깊이를 확보하는 게 특징이다. 온유하고 맑은 색채들 속에서 은근한 색기가 전해지며, 파스텔톤 느낌의 따스한 색감은 보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작가가 선사하는 ‘봄날의 기억’ 연작은 다양한 색채와 구도로 풀이된 꽃그림이 눈길을 끌며 조형미가 돋보이는 ‘자연 이야기’의 투박한 느낌도 인상적이다. 작품 ‘나비의 시선’은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나비의 눈으로 바라본 꽃의 모습을 독특하게 담아냈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 중심부의 암술과 수술, 그 속에 담긴 자연 순환의 힘과 생명력이 화려한 빛깔의 나비와 만나



‘봄날의 기억-2’

개성있는 화면을 구성한다. 서 작가는 전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동행’, ‘꿈꾸는 민들레’, ‘생명의 노래’ 등을 주제로 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화 특장대전 대상, 전라북도미술대전 특선 3회를 수상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서울 공평아트센터 등에서 열린 다양한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현재 AFI(아트포럼 인터네셔널), 수완문화사랑회, 산책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이 명창의 봄 이야기’

4월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오는 4월1일 오후 7시 목요일국악한마당 제648회 공연 ‘김선이(사진) 명창의 봄 이야기’를 개최한다.

공연은 봄이 무르익는 4월의 첫날,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공연을 통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의 꽃들처럼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무대를 꾸미는 김선이 명창은 1998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사)백제남도소리교법진흥회를 설립해 ‘동편제’, ‘서편제’, ‘동초제’ 등 판소리를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판소리 완창 발표회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김 명창은 이날 (사)백제남도소리교법진흥회의 가·무·악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편제 심청가’ 중 ‘복을 두리둥둥’ 대목과 ‘동초제 흥보가’ 중 ‘중타령’ 대목을 들려주며, 선비의 사풍정감을 담은 춤,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설장구, 그리운 남에 대한 연가도 무대에 올린다.

이날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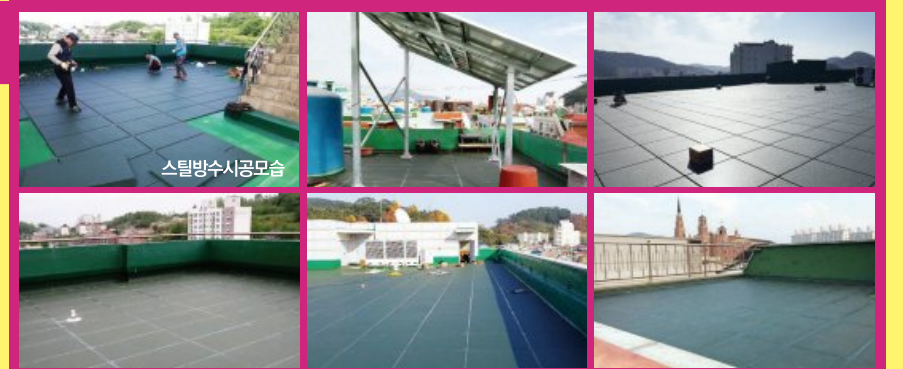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